

# 2017. 5. 4. (목) 언론보도

**KBS** 2017년 05월 04일 (목) 사회

## 경의선철교 스카이워크 두 달 만에 방문객 3만 명



뉴스 앵커 경의선철교 스카이워크 두 달 만에 방문객 3만 명

14.4 X 10.8 cm

## 통일을 꿈꾼다 '내일의 기적소리' 명소 부상

이재상

【앵커멘트】

분단의 상징물로 남아있던 임진강 경의선 철교가 스카이워크로 재탄생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개장한 지 2달 만에 관람객 3만 명이 찾으면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민통선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깁니다.

6.25 전쟁 때 생긴 교각의 총탄 자국을 보면서 전쟁의 아픔도 느껴봅니다.

【인터뷰】 박 영순 / 인천시 서구

"많이 슬프죠. 이곳에 오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고 다시는 이런 전쟁 같은 참상은 없어지고 더 좋고 행복한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임진각 스카이워크인 내일의 기적소리를 찾는 관광객이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지 2달 만입니다.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지만 국내에서 유일하게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인터뷰】 김지엽 / 내일의 기적소리 안내원

"여기가 민간인 통제구역인데 아무래도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직접 전쟁에 관련된 안보교육을 시켜줄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내일의 기적소리'라는 이름은 통일의 염원을 담아 고은 시인이 직접 지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 구간으로 나누어진 다리에서 임진강 북쪽을 바라보며 통일을 기원합니다.

【인터뷰】 한재춘 / 서울시 강서구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 빨리 통일이 돼서 경제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20억 원을 투입해 복원한 내일의 기적소리가 임진각 주변의 새로운 안보 관광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재상입니다.

<영상편집 이종진>

이재상 leejs@obs.co.kr